

서울~성삼재 고속버스 운행 내일 강행...충돌 예상

구례군민 “성삼재 입구 버스 저지”...국토부·전남도 항의 방문
운송업체 “매일 운행 증편”...국토부 “전남도·경남도 협의 선행”

구례군과 전남도의 강한 반발에도 서울~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신설 노선(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의 좌석이 매진되면서 24일 운행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구례 지역민들이 성삼재 입구인 정령치 삼거리에서 버스 진입을 막기로 하면서다.

이들은 또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에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고속버스 운행 노선을 허가해 준 국토교통부를 22일 항의 방문해 노선 허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전남도청을 찾아 버스운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구례지역 13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구례군민추진위원회' (이하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반대추진위는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철회를 위해 구례군민 반대운동 실천 투쟁을 선언하고, 이날 버스 노선을 허가한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추진위는 “구례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리산을 침범했다”며 “전남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리산국

립공원의 훼손을 초래할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국토부를 비난했다.

반대추진위는 “이 도로는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오르내리며 지리산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구례군은 환경을 보존하고 동물 로드킬을 막고자 이 도로를 폐쇄한 뒤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추진위는 이어 “국토부는 성삼재 도로가 미치는 위험성과 악영향을 고려해 노선 인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운행정지 가처분소송·행정심판 등을 법적 투쟁과 함께 물리적 저지도 서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노선 인가 철회는 불가하다”면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추진위는 앞서 지난 21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이 구간 버스 운행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버스운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할 것을 전남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선 신설과 관련해 구례군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유와 운행 이후 대책도 따져 물었다.

전도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구례군민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버스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버스는 24일 서울~지리산 성삼재 노선 고속버스 첫 운행을 강행



구례지역 주민들이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노선 인가'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례군 제공〉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운행은 24일 금요일 저녁 11시50분에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해 25일 토요일 새벽 4시께 지리산 성삼재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 업체는 운행 강행뿐만 아니라 주 2회 운행을 매일 운행으로 증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한 반발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전 좌석 예약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는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운행하는 증편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구례군민들은 오는 25일 새벽 성삼재 초입인 전남도와 전북도 경계지점인 정령치 삼거리에서 고속버스 진입을 막을 것으로 알려져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항해진 반대추진위 총무(구례발전포럼 대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운행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버스노선 인가를 해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남해안남중권발전협,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결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5대 협력사업 공동 추진

고흥 병원화재 피해자 지원도

경남과 전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여수시청에서 9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동 추진사업과 협의 안건을 심의하고, 9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업 성과 등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공동협력 사업인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제2 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광양항~울진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10일 고흥에서 발생한 윤호21



경남과 전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난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연 뒤 참석 단체장들이 '코로나19 극복' 팻말을 들고 조기 종식을 다짐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병원 화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해안남중권 협력을 통해 COP28 유치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공동 대응과 다양한 남중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남해안 시대를 견인하며

상생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난 2011년 5월 창립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저축 습관 들이고 아이 꿈 이루는 종갓돈 되길”

고흥 도양읍, 출산 장려 ‘꿈씨앗 통장’ 협약...10만원 지원

고흥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장종실)는 지난 21일 도양읍사무소에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녹동새마을금고(이사장이광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경수)와 ‘꿈씨앗 통장 지원 협약식’을 했다.

〈사진〉

‘꿈씨앗 통장’은 저축 습관과 아이의 꿈을 이루는 씨앗(종갓돈)이 되기를 기대하며 올해 출생한 아이에게 10만원이 든 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녹동새마을금고가 후원금 지원과 통장 개설을 지원하고,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관리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지난해 ‘꿈씨앗 통장’은 도양읍 출생아 45명에



게 전달됐다.

이광우 녹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흥군의 출산장려 후원을 위해 출생아 전원에게 지속적으로 ‘꿈씨앗 통장’을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Modern

클래식스타일 Classic

지중해스타일 Mediterranean Sea